

油價 고공비행... 성장·물가·체감경기 '휘청'

전정부지리 처숙된 국제유가가 지난 주말 상승세를 잠시 멈췄지만 당분간 기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 경신 행진을 멈춘 미국산 서부 텍사스중질유(WTI)는 한때 배럴당 80달러를 넘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두바이유도 75달러 선을 위협할 때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유가로 성장, 물가, 체감경기 등에서 부담을 받아 충격의 강도는 컸을 수밖에 없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런 충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름값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급등세 오래가지 않겠지만 장기적 상승 추세=사상 최고가를 연이어 갈아치우던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멈춘 것은 현재 유가수준이 너무 높다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 허리케인 옴베르트로 피해를

봤던 정유시설들의 가동 재개 소식 영향이 컸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추가 약세가 없는 한 급등세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유가의 근본 원인이 노후화된 정유시설로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으로 인해 늘어난 석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급불균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속도가 문제지,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 회복세 발목 잡나=국제유가가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

면 국제유가가 1% 상승하면 1년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은 0.02% 정도 감소하고 물가는 0.02%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국제유가(두바이유) 전망치를 배럴당 평균 58달러에서 62달러로 최근 올렸지만 현재 두바이유는 이미 10달러 이상 높다. 물론 연평균 유가와 정부 전망치의 차이는 아직 크지 않지만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두 지표 사이의 괴리가 늘어나 올해 성장을 예상치던 4.6%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고유가는 국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면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보다 더 크게 올라 교역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떨어져 체감경기도 악화된다. 더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세계 경기 하강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국제유가 급등세 지속되면 갈길 바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요구 다시 높아져=유가의 고공비행이 우려되면서 유류세를 내려 고유가의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을 ㄹ 당 1천496.4

원이라고 가정할 때 세전 가격은 616.07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880.33원은 세금이며 세부별로는 교통세 526원, 주행세 139.39원, 교육세 78.9원, 부가가치세 136.04원 등이다. 휘발유 가격의 58.8%가 세금인 셈이다. 정부는 이런 유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OECD 회원국 중 일본(41%), 호주(38%), 캐나다(31%), 미국(14%) 등은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 실적보다 20조원 이상 증가한 150조4천억에 달하고 올해 예산에 비해서도 11조원(7.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에 여유가 있는 만큼 유류세를 내려 고유가에 따른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연합뉴스

두바이유 75달러선 위협... 경기회복 발목 잡아 서민·자영업자들 "유류세 내려달라" 다시 요구

소형점포 카드 수수료 11월부터 1%P 내린다

11월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수수료 조정 시기를 이같이 잡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업계와 은행계 카드사들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회사별로 수수료 조정 방안을 확정된 뒤 10월 한달간 가맹점과 맺은 계약의 수정, 전산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1월부터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금융연구원의 원가 산정 표준안과 공청회 결과를 볼 때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카드사들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인 78만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며 인하 폭은 평균 1%포인트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평균 3%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급보다 수수료 부담이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 /연합뉴스

휴대폰 피해 70%가 '부당요금'

지난해 1,071건·올 상반기 359건 접수

휴대폰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의 70%가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부위 서해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4천1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요금과 관련된 것이 2천837건으로 68.84%를 차지했다. 부당요금 관련 불만은 2003년 269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297건, 2005년 841건, 2006년 1천717건 등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 6월까지 359건이 접수됐다. 부당요금에 이어 명의도용이 11.38%로 뒤를 이었고 ▲미성년계약 3.06% ▲

통화품질 2.77% ▲이중가입 0.73% ▲기타 13.22% 등의 순이었다. 접수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단말기 할부금이나 부가서비스 요금 환급으로 해결한 경우가 24.36%였고 보조금 지원 이행 등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한 경우도 18.66%였다. 배상이나 부당행위를 시정한 경우도 각각 8.95%, 8.32%였다. 반대로 부당행위로 인해 아예 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16.65%에 달했다. 서 의원은 "소비자 이익과 직결되는 서비스 요금 체계가 여전히 불합리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 보완 및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휴대폰으로 영어배우세요 SK텔레콤은 WCDMA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 'Live on English' 서비스를 17일부터 시작한다. /연합뉴스

소규모 성실 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면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170만명 중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들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면제 요건 등을 담은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제기본법은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성실신고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다. 세무조사 면제적용 대상자는 개인(161만8천명)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농업·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억 5천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 이하 다. 법인(8만8천명)은 모든 업종에서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면 적용대상이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고용 환경 갈수록 '뒷걸음질'

청소업 등 저부가가치 일자지만 늘어

비정규직 보호법 영향

영역·과점근로자를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이나 건설청소업, 텔레마케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 고용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는 2천345만8천명으로 5년 전인 2002년 8월의 2천222만3천명에 비해 5.6%(123만5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취업자 증가율을 산업별 보면 사업지원서비스업이 50.4%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수도사업(50.0%), 보건·사회복지사업(30.9%), 교육서비스업(28.3%) 등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이 2005년 기준으로 실시한 서비스업종조사에 따르면 사업지원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영업이익,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대손상각비 합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는 3천662만원으로 대표적 서비스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1천774만원)의 2배 이상이다. 하지만 중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사업

서비스 중에서 종사자 비중이 42.6%로 가장 높은 사업지원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천411만원으로 숙박업(2천531만원)보다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부 업종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경비 ▲건설 및 사업장 청소 ▲텔레마케팅 ▲산용조사 및 수급 대리 등이 대표적으로 종사자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반면 사업서비스업 중 1인당 부가가치가 5천만원이 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업과 연구 및 개발업의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4%, 7.4%에 불과하다. 하지만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의 상용직은 정규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1년 이상인 경우이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비정규직도 상용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최근 상용직의 증가로 반영됐을 가능성도 높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250회)	팝콘복권 (제7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9 23 30 37 43 45	38		1	10억	7조 964718
			2	5억	7조 964717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80491
			5	1만	각조 215
			6		각조 12
			4		각조 71
			5		각조 9
			7		1천
					각조 5

신정아 파문... 재계에 불똥 튀나

미술전시회 후원과정 로비 의혹에 곤혹 기업들 사회환원 취지 메세나 활동 위축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이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신씨가 근무한 성곡미술관에 대한 후원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업의 메세나 활동도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웬만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신정아 재계, 이종 문화예술행업 74억5천200만원, 체육진흥 활동에 73억8천700만원 등을 썼다. LG그룹은 LG아트센터가 중심이 돼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독창성·작품성을 감안하고 특히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금호아시아나나 금호문화재단을 통해 음악, 미술, 장학사업을 진행하

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음악분야 후원에 힘을 쏟고 있다. 금호문화재단의 1년 예산규모는 60억원 정도인데 이 중 10억원 정도를 후원사업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들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후원대상에 흠결이 발견되거나 약제가 발생했을 때 역풍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번 신정아씨 사건이다. 대우건설은 박세흠 사장(현 대한주택공사 사장) 재직 시절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성곡미술관에 모두 2억9천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이 과정에서 신씨와 '특별한 관계'로 알려진 변양근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위임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한편 신정아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도 장기적인 전략과 일관된 원칙, 더욱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설 땅 좁아지는 서민금융사 상호금융사 자산 6년만에 최저치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 등 서민금융회사들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다. 경제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서민금융회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경우 서민금융 공급이 줄어들고 금융시장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민금융회사인 신협·농협·수협, 산림조합의 단위조합들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상호금융기관의 6월 말 기준 총 자산은 226조4천억원으로 같은 시점 국내은행 총자산의 16.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2001년 이후 통계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호금융사 자산의 은행 대비 비중은 2005년 말 18.0%에서 2006년 말 17.7%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올 들어 6개월 동안 상호금융사의 자산은 1.7% 증가했지만 국내 은행의 총자산 증가율은 8.0%에 크게 못 미쳤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위기론은 서민금융사인 저축은행을 점조준하고 있다.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질 경우 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간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주민번호 대체 수단 도입 사이트

네이버·옥션 등 213개 달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213개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상 사이트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이핀 등 주민번호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할 사이트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조사에서 하루 순방문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사이트라고 정보부는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29개, 옥션 등 인터넷쇼핑몰 33개, 국민은행 등 금융사이트 22개, KBS 등 언론사이트 20개, 생활정보 사이트 53개, 연예오락 사이트 35개, 한게임 등 게임 사이트 12개, 타일랜드 등 통신 관련 사이트 9개 등이 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미광종합건설	일반적인 경리업무 및 사무보조 지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22	062-654-4402
하나경인내사	방화안전관리(급전기기사) 직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9/22	062-221-1570
한영디자인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시인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9/22	061-372-0245
하이드로텍	MCT운영자 및 기공 조립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22	053-593-8468
에이시광학	품질관리 생산관리 경력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9/26	062-956-0765
알엠텍	프로젝트 개발보조 지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9/28	062-941-1789
천호환경개발	무역사무원-일본어(일본어 통역 번역)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9/29	062-526-9640
대우정공	생산직 시인모집(용접/프레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956-5191
디케이엠	웹/편집디자인/신규 및 경력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971-5757
본랑건설	보사 공무 및 시공관리 지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9/30	062-652-4278
제이티에스	기업 SMS 펄프그래머(php)	대졸/경력2년	1800~2000	09/30	062-365-6465
공정전과	판매 영업 및 매장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671-3477
휴먼전자	사출 및 출하업무 지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30	062-600-7513
코오롱건설	광주수원지구 CAD직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9/30	018-761-6163

<광주지역에 512-6210 제공>